

제 7강 제국주의, 그리고 한계

◆1교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

▲제국주의의 정의

우리가 지난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자본주의는 내부적으로 계급독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체제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바로 국가가 그 두 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바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를 분리시키는 그런 폭력적, 때로는 은폐된 폭력을 통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본의 독재를 확립을 하고, 대외적으로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실현에 국가가 앞장서게 된다.

근데 레닌이라는 사람이 제국주의를 정의할 때 다섯 가지 정도의 규정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예를 들어보면, 자본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선진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식민지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짓는 거죠.

근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의 응축물인거죠(일단). 자본을 수출한다. 이 특징을 하나 잡았었고, 그 다음에 상품시장, 자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파는 거, 이게 잉여가치의 가장 평균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원료의 수입, 헐가로 원료를 도입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은행자본하고 융합되어서 이게 소위 금융자본을 이루어가지고 대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전위로 하는, 국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금융자본 속에는). 그래서 국가가 앞장을 서가지고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군대가 같이 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선교사가 갈 때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넘어서 폭력을 수반한 화폐, 그게 제국주의를 구성한다고 봤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특정한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독점자본주의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국주의 전쟁, 자본 대 자본

그래서 독점자본주의 시스템은 자본을 수출하고, 상품시장을 확보하고, 원료를 수입해 들이기 위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자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좁은 국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자본주의의 내적으로 필연적인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 레닌은 좀 더 특수한 역사적 단계, 자본주의 일반이 아니라 자본주의 독점단계에서 제국주의가 나타난다고 봤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the latest stage of capitali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잘못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last하고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건데요. 보통은 last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붕괴론적 독해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late라고 하는 거는 '최근의' 그런 말 이죠. 가장 최근국면, 레닌이 사는 시대에서 봤을 때 가장 최근의 국면이다. 그 단계다. 그렇게 레닌은 봤는데, 이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모든 민족국가들이 외부로 가고, 여기서도 외부로 오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제1차 세계대전의 내적논리로 읽었습니다.

전쟁이 나타나게 되니까 전쟁기에 이거는 국가 A고, 이걸 국가 B라고 하면, 계급관계니까 여기도 자본이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본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제국주의 전쟁 즉, 자본 대 자본의 전쟁이다. 라고 레닌은 파악을 했어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지만 그 국가 대 국가 전쟁의 본질은 자본 대 자본의 전쟁이다. 즉, 독점자본간의 영토분할을 둘러싼 전쟁이다. 라고 봤죠.

영토분할은 그 이전의, 독점자본의 이전단계에서 분할이 쪽 이뤄져 와가지고 지표면이 거의 대부분이 식민화되는 상태에서 이 영역을 후발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눠서 분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전쟁이 나타나는 게 예견되는 전쟁의 구도로 갔죠. 이때 그럼 프롤레타리아정당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1907년부터 국제 공산당들(그때는 공산당이 없었어요) 사회민주당들의 회의에서 논의했던 건데요.

▲제국주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이브

독일의 카우츠키하고 베른슈타인이 이끌던 사회민주당의 우파와(카우츠키는 그때만 하더라도 좌파였죠) 좌파가 모두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는 독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해야 된다고 본다. 즉, 이 계급 분할선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을 도와서 일단 state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레닌은 바로 이 과정이 이제 더 이상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자기의 원칙을 버려버린 것으로서 파악을 하고, 카우츠키의 일종의 영향권에 놓여있던 레닌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 대 자본의 전쟁에서 약한 고리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처럼, 영국이라거나 프랑스라거나 이런 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가 아니고 러시아처럼, 약한 고리에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먼저 자본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면(이게 내전이죠) 내전을 하게 되면, 고리가 끊어지는 부분부터 연쇄적인 절단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이브, 전야로(크리스마스이브 할 때 그 전야로서) 파악을 하는 아주 독특한 제국주의론을 만들어냈고, 오늘날도 이 관점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좌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좌파라고 부르는 구(오래된) 좌파들의 대부분은 이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종속이론이라거나 주변부자본주론이라거나 이런 일정한 변형이 가해졌지만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보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났다고 하고, 거기서 어쨌건 약한 고리가 끊어졌는데, 사회주의하고 제국주의하고의 관계는 뭐냐.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될 거 같아요.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일국사회주의가 왜 불가능하냐를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할 거 같습니다.

▲맑스의 사회주의 비판

보통 사회주의자들의 기본논리는 사회주의하고 제국주의는 대립된다는 거죠. 대립되고, 제국주의를 대체한 대항적 사회형태로 사회주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이야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럼 우선 맑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봤던가?

여기에서 한 번 이야기를 출발해보면, 맑스를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맑스가 1848년에 썼던 강령적 문건의 이름은 『The Communist Manifesto』 이거든요. 『The Socialist Manifesto』가 아닙니다. 그리고 『철학의 빈곤』처럼 푸르동을 비판한 거라거나 『독일이데올로기』처럼 포이에르 바하, 막스 슈티르너, 브루노 바우어, 이런 사람들을 비판한 그 방대한 책들, 또 『헤겔 법철학 비판』은 특히 그렇고요. 이런데서 맑스가 자기를 사회주의하고 동일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맑스는 끊임없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자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과의 싸움, 이게 맑스가 젊었을 때 추구한 말하자면 핵심적인 논쟁, 이슈거든요(맑스는). 사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죠.

푸르동 같은 경우는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지만 사회형태를 사회주의라고 말하거든요(본인은). 그러면 프루동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화폐관 같은 것에서 화폐를 노동시간증표로 대체하자.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척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바로 화폐라고 하는 게 노동시간에 의한 측정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사회주의로 부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푸르동의 아나키즘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는 라살레주의자가 부흥할 때였거든요. 라살레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권력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달성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라살레의 국가주의적 사회주의관에 대해서 또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양 방향의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론이라거나 아나키즘적 사회주의라거나 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맑스는 보고 있는데, 맑스가 사회주의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문건 중에서 유명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타강령 비판』이거든요. 『고타강령 비판』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단계의 특징을 부르주아적 평등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요약하는 말이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일한만큼) 가져가는 것, 분배에 있어서의 능력주의 그 다음에 생산에서의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거나 아동이라거나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가져갈 게 없는 거죠.

물론 맑스는 『자본론』에 연기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연기금으로 축적했다가 주는 거를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구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지 당연한, 존엄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살아나갈 수 있을 뿐이죠(혜택을 받아가지고).

어쨌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가져간다. 이게 바로 평등인데, 이 평등은 부르주아적인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즉, 사회주의는 부르주아적 평등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라는 것이죠.

이것과 코뮌니즘을 대비시킬 때 코뮌니즘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간다. 분배에서의 필요성, 생산에서의 능력성, 이 두 기준으로 정의를 했었죠. 인제 다른 건데, 이거의 문제는 연속론으로 주장을 해놓은 게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타강령 비판』은 이 구절을 제외하고 나면, 이게 사실 제외되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래디컬한 문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사회민주당들에서 국가주의가 아주 득세하던 시기, 그래서 국가를 장악해

가지고 이행하자고 하는 그 주장들이 난무하던 시기였고, 파리코문의 패배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고타강령 비판』은 바로 그러한 국가주의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독일사회민주당 강령에 대한 비판이니까.

근데 맑스는 이것을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일단 이야기했다. 그렇게 마지막에 쓰고 있는데 한참 뒤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공개됐던 문건이죠. 이런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사회주의자들은 모르고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건 전반부에서 국가 사회주의적 경향에 대한 아주 예리한 비판 같은 게 나오거든요.

▲무정부주의 극복과 생산성 향상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해서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로 기억이 나지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좌파 운동의 기본특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19세기 후반부터의 역사는 코뮌리즘의 역사가 아니고, 사회주의 역사, 사회민주주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사회주의가 이해되는 방식은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회주의가 해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생산력의 향상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자본가들은 투자도 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들은 소비할 게 또 없어지니까. 계속 주기적인 생산력의 파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기적인 공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계획적으로 사회를 운영하게 되면, 이런 공황이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이 문제는 소위 무정부성의 극복하고 통합니다.

무정부성을 엥겔스는 어디서 봤냐하면 시장에서 봤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정부영역인데, 이 무정부적임으로 해서 바로 시장 자체가 상품들의 그 자유로운 교환영역이면서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빈발한다고 보는 것이죠. 거의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건 생산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 거고, 하나는 사회운영원리에서 본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대체하는 가장 중심적인 대안이 계획이라고 봤습니다. 사회계획인데,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야말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원리라고 봤죠.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에 사회주의자들이 쓴 문헌들을 보면, 정말 좀 적나라할 정도로 계획이라고 하는데 많은 무게를 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거든요. 지금 민주노동당이 계획경제 어쨌고 강하게 못하잖아요. 그 요소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계획을 전면화 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 요소들의 다원성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거는 이론적 계획을 강하게 내세우는 방법인데.

▲사회계획

레닌은 바로 이런 우파 혹은 중도파로 된 카우츠키와는 구분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획이라고 하는 범주를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범주로 본 점에서는 차이 없어요. 다만 레닌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화 된 사회로 나아가 감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 주체의 혁명적 역할, 실천적이고 혁명적인 역할을 끊임없이 사

고했던 사람이죠. 물론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실천적 행동의 형태는 당의 우선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쪽으로 기울었던 일시적인 시기들이 1917년 4월부터 7월까지를 제외하면 말이죠. 하여튼 그 얘기는 너무 길고, 일단 사회주의의 기본 품이 계획에 가있었다는 거. 그래서 17년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어쨌건 계획 경제가 도입되게 되는데, 계획이 부분적으로밖에 시행될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의 개별공장들은 대규모 공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로 봤을 때는 소위 관제구조라고 불리는 독점자본의 장악영역이 적었습니다(우선). 그래서 국유화를 일단 했는데, 은행과 주요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를 했지만 그게 사회전체를 돌릴 만큼 커다란 부분이 못됐어요.

게다가 러시아 사회는 방대한 농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 농민들이 토지의 국유화에 반대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봉기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레닌은 토지의 국유화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북한과 비슷하게 토지의 농민적 분할, 농민적 토지소유 쪽으로 타협해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의 상당부분은 농업에서 주어지는데, 이 농업적 생산력은 농민 개개인들이 통제하는 영역이 되니까 국가통제 영역이 안 미치는 것이죠. 나중에 여기에서 고통을 느낀 스탈린은 농민적 토지소유에서 협동농장으로 정책을 전환시키죠. 그래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집단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많이 희생되고, 사실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계획의 영역이 협소함으로서 사실상 사회주의를 레닌의 입장에서 보면, 1917년부터(레닌이 24년에 죽는데) 한 23년부터는 몸져 누워가지고 그냥 간접적인 그런 지도만 하는데요. 그 몇 년 동안에 뭐라고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산주의라거나 네프라거나 이런 식으로 전시공산주의는 좌충했다가 네프는 또 우돌하는, 이런 좌충우돌의 정치를 펴다가 그냥 걱정을 하면서 죽죠(레닌은).

레닌의 마지막 투쟁을 기록한 문헌들이 번역된, 제목이 뭘니까. 얇은 책인데, 스탈린에 대항하는 레닌의 투쟁인가. 제목이 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얇은 책에 보면 24년에 임종을 앞두고 레닌이 엄청 고통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고 결단성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좀 무식하고, 트로츠키는 아주 머리는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력 있게 하지를 못하고, 그니까 원칙주의죠. 교주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니까 스탈린은 사람들은 잘 조직하니까 당 내에서는 스탈린이 항상 우세했어요. 근데 트로츠키는 뒤늦게 볼셰비키 당에 들어온데다가 성격도 그러하니까 중심이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대개 걱정을 하고, 당내에서는 옛날 구 볼셰비키들이 소수가 되고, 또 노동자들은 전쟁에 가서 대부분 다 죽어가지고 혁명적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주로 인텔리출신들과 구 관료들 중에서 현실 영합적으로 뭘니까. 공산당이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출세주의자들이 당에 몰려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당이 유지될까 걱정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 명 한 명을 다 평가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자기주변에 있는 핵심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성격과 기량과 약점, 이런 것들 전부 평가하는 것도 나오는데, 여하튼 엄청 걱정을 많이 하고, 결국 죽게 된 후에 1928년, 약 4년간의 당내투쟁을 겪어서 스탈린이 완전히 승리한 게 1928년이었고, 이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까 말한 일국사회주의론과 중공업파라고 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그 다음 시기를 스탈린이 밀고 나가게 되죠. 정치적으로는 35년에 가게 되면 인민전선론과 소비에트헌법, 소비에트 헌법이 36년에 완성이 되는데, 사회주의가 일단 소련에서 일국적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입장이죠.

▲일국사회주의

이런 식의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의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게 되는데, 어쨌건 아까 질문에 답하는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사회주의를 만약에 계획범주로 본다면, 일국사회주의란 거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하게 가능하다. 사실상 국가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계획주체였습니다.

계획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생산했고, 계획적으로 잉여가치의 외부적 활유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런 계획주체로서 기능을 했거든요. 그 계획주체로서의 국가기능이 얼마만큼 강도가 있었냐. 그 그레이트, 등급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계획하는 주체로서 일단 나타난다는 것이죠.

게다가 1920년대 이후에 즉, 지구의 동쪽에서 사회주의가 정착된 다음에는 즉, 계획적 자본주의가 도입된 다음에는 서구도 계획범주를 받아들여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혼합경제, 그렇게 배우죠. 계획범주를 받아들여서 사회주의소련이 공황 없이 저렇게 하여튼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것에 서구자본주의들 대부분이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그쪽에서 배우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벤치마킹하는 역사가 서구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복지국가, 복지국가라는 게 일종의 혼합경제로서 서구에서 구축되었던 사회주의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인즈주의는 사실상 사회주의인 거죠. 계획으로서의 사회주의 그거는 동이나 서나 20세기에는 지구전체에 다 성립되었던 체제이다.

한국에서 계획경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된 거는 누구죠? 박정희정권 때죠. 5년마다 경제계획을 해가지고 소위 원시적 축적을 이루고, 농민들의 양극분해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1969년 중1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남강에 댐을 막아가지고, 제 고향이 물에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쫓겨 올라온 겁니다. 그때가 박정희 정권 때였죠. 유신은 아직(72년부터니까) 남았지만 어쨌건 그 댐을 막아서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화, 이거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이 수많은 수몰민들을 생산해내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계획경제가 60년부터 79년 약 2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천구백팔십 몇 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때 노태우였는가요. 하여튼 회담을 하죠. 전두환이었습니까? 노태우였습니까? 노태우였던 거 같죠. 그때 고르바초프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한국이 진짜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사회주의인데, 소련보다도 더 사회주의적인 게 한국이었다고 말을 했어요(고르바초프가). 그걸 농담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올랐을 때의 소련은 계획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을 하는 그런 식의 내각페레스트로이카를, 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라스노스트를 해가지고 개혁과 개방을 하나갈 시점이죠. 그게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도입된 개방정책이 좀 늦게 시작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자체가 소련 전체를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집중된 자본관리를 해냈는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련보다 더 계획적이었던 사회가 한국이었던 거죠. 그냥 비위맞추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세기는 동구에서건 서구에서건 또 신흥공업국에서건 바로 계획으로서의 사회주의원리가 완전히 일반화되었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20세기 전체가 사회주의시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거로 보는 한에서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거는 실제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으로 차용됐다. 북한도 그건 마찬가지죠.

남북의 분단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북한경제가 성장했잖아요. 1972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도 생산력이 훨씬 더 앞서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남한은 늘 원조경제해가지고 미국에서 돈 받아와가지고, 원조 오면 관료들이 대부분 다 뜯어먹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부패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고, 좌파가 바로 여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domestic-market, 국내시장을 형성해야 된다. 국내시장이 형성이 안 된 게 지금 남한의 제일 큰 문제다. 이게 바로 박현채 씨의 경제 박현채 씨가 PD론의 일종의 대부인 셈인데, PD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남한에서 어떻게 일국적 국내시장을 형성할 것인가. 일국적 시장을 형성하려면 민중이 싸워가지고, 독점자본가들 특히 재벌들로부터 권력을 탈환을 해서 국내시장을 구축해나가야 된다고 파악을 했어요. 이게 내재적 발전으로 연결되고, 좌파 진보운동의 기본 사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좌파운동이 내셔널리즘 그 자체죠. NLPDR만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PD론이라고 하는 것, ND론도 민주민중혁명론이고, PD론도 그냥 PD라고 쓰지만 그들이 이름을 전부다 NLPDR로 씁니다. 북한을 따르는 NLPDR이 있고, 맑스주의를 따르는 NLPDR이 있었던 것이죠. 다 NL론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국시장형성이론인데, 남한에서 얼마만큼 60년대까지 국내시장 형성을 못하고, 관료들의 부패가 극심했으면 그래서 대외 의존적 경제, 종속경제였으면 좌파들이 그런 식의 이론을 전개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 일국사회주의를 계획으로 이해하는 한에서는 가능하고 효율적이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효율성이냐고 물으면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 그런 건 아니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고, 자본은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 국가는 부강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인정할 수 있죠. 분명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냥 나쁘기만 한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소득중의 일부는 민중들에게 또 분배가 되었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복지국가 시스템이 돌아갔던 거죠.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그때 당시 복지 혜택을 받았던 보장노동자층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에 대한 향수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때는 참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2교시: 국가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한계

▲일국성과 코뮌리즘

그렇지만 사회주의를 계획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회주의=코뮌리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란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자본주의 자체가 일국에서 성립되질 못해요. 모순 속에서 커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좀 전에 그거를 외부의 필연성, 외부를 끊임없이 병합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레닌처럼 독점자본주의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흡수가 본질적인 것이죠. 외부의 흡수가 자본주의에 본질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레닌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축적론』에서 끊임없이 자본이 해외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가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 말을 하거든요. 더 이상 합병할 외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붕괴론적 대안으로 나간 것이 문제이지. 지금 포드주의라거나 포스트포드주의라거나 이런 식의 자본주의의 내적 혁신을 통한 진화의 가능성을 몰각했던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운동에 있어서의 외부병합설, 이거는 로자가 잘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자본주의 자체가 일국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추구되지만 사실 일국적인 경계선이 불가능한데, 하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 코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에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 하면, 일단 노동자 범주하고(이건 사후적인 논리인데요) 프롤레타리아트가 오히려 구분돼서 이해해야 되는, 노동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국가에 의해서 영토적으로 관리되는 주민들의 특수한 형태거든요. 공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본, 전 세계의 자본가의 관계에서 명명될 수밖에 없는 어떤 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하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자체가 개념적으로 일단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의 문제에서 자본도 노동자들을 연합시킵니다(실제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노동자들의 단결은 방해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들이 잘 협력하고, 분업, 현업관계에서 공장 내에서 마치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듯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줘야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애 일할 때 딴 사람 막 빠져나가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만한 공장은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자본가의 이행하고 일치합니다. 자본가 계급은 어떻게 보면, 연합된 노동자들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죠(한편에서 분명히).

그런데 이 생산의 한계는 적어도 근대자본주의의 경우, 제국 이전의 자본주의에서 보게 되면, 국가의 경계에 의해서 분할되죠. 모으지만 또 쪼갬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모으되(국가 내적으로는 모으되), 국경 밖에서, 국경을 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시키면서 다시 분할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데, 국가적으로 연합된 노동자들을 우리는 민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nation이라고 하는 게 갖는 두 개의 해석 방향이 있는데,

하나를 민중으로 해석하는 거고, 하나는 state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nation state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people이 되는 거죠. nation은 바로 people을 생산함으로써만 유지되는 것이죠. people을 생산하려면 국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삼각관계가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람시 같은 경우가 민족민중(민중민족)이라고 하는 범주를 옥중에서 계속 쓰거든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을 안 씁니다(거기에서는). 그게 어쩌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검열에 걸릴 용어라서 그랬기도 했지만, 이 말로도 충분히 프롤레타리아트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분할된 민중, 이게 연합된 국가적으로 연합된 생산자들인데, 국제적으로는 분할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본은 노동자들이 국가 간의 틀 속에서 분할되어 있는 한에서는 계속 지배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외부성을 생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인종차별도 바로 그런 것의 일부일 텐데, 외부란 걸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 외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바로 외부성의 파괴, 외부의 부재,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생산자들의 연합,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본의 내부적 독재+대외적인 흡수인데, 이 대외적인 흡수의 축을 계속 서포터 해주게 되는 거죠.

한국 노동자들은 대접해주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은 착취하고 그런 거를 한국 노동자들이 지지하게 되면, 자본주의는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지금 사실 그런 거 아니예요. 이주노동자들, 계속 불법화시키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한국 노동자들이 정면에서 대응하지 않잖아요. 립 서비스 정도의 차원이죠.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을 사회주의의 핵심으로 본다면 그게 코뮤니즘communism이죠. ‘com’이라는 건 ‘함께’라는 말입니다. ‘mun’이라고 하는 건 ‘선물’에서 나오는 거고, 주고받다. 이런 뜻이죠. communication할 때 그겁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거, 이 선물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프롤레타리아트의 commun이 사회주의의 만약 핵심이라면 그건 일국에서는 불가능하죠. 일국성이라는 건 자본의 원리이지 코뮤니즘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자본과 코뮤니즘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주의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봤고, 그것이 현실화된 사회로서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보던 자본주의죠. 현실사회주의, 그거는 부르주아독재가 관철되고 있는 하나의 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인데, 그걸 우리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이고, 특별히 새로운 게 있다면, 국가자본의 헤게모니가 역사상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는 국가적으로 헤게모니가 관철되지 않았거든요.

제일 발전된 게 금융자본이었던 건데, 국가가 자본형태로 움직이지 않았습시다. 국가는 폭력의 소유주로서 해외 나갈 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타국의 군대하고 이렇게 대결을 해서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했지. 국가 자체가 자본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동구에서는 국유화된 주요한 자본형태들이 국가자본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자본가로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그때 국가는 어쩌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진 노동자들일 수 있어요. 노동자라고 하는 것도 자본범주라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연합된 노동자는 자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공장, 이것도 자본주의 공장이죠. 거기에서 자주적으로 관리되지만 운영원리에서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걸 좋다. 나쁘다 가 치론적인 판단은 일단은 뒤로 미뤄도 좋은 거죠. 일단 그 본질이 뭐냐, 본성이 뭐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자본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 연합의 수준이 국지적일 때는, 글로벌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기업체 단위로 노동자가 뭉쳐있던, 좀 더 확대되어서 사회적 단위로 뭉쳐있던,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뭉쳐있던 간에 노동자들은 자본을 발전시키는 대행자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논의해야 될 세계시장의 압력이죠. 세계시장속에 국가가 놓여있는 한에서는 세계시장의 논리학, 그게 국가의 논리학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그건 공장의 논리학이고).

그러니까 아나키즘적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대구라거나 어딘가. 화성, 이런 쪽으로 공동체를 만들지만, 이 공동체가 하다보면 시장의 압력 때문에 계속 위기에 부딪히는 것이죠. 결국 뭔가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계란을 팔든, 된장을 팔든, 술을 만들어 팔든, 의복을 만들어 팔든 해야 되는데, 그 생산된 상품의 가치적인(자본주의적 경제가치 말고요. 사용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다른 데서 생산된 거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 메커니즘에 보면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공동체들이 전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혹한 초과노동을 강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게 코뮌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일국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공장단위에서 물론 더 불가능하죠.

▲현실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국가자본주의, 이 국가자본주의는 서구에서도 정착되었다고 말했잖습니까. 국가자본은 자본주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거든요. 제2국면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국가하고 자본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가는 자본이 아니지, 왜 국가가 자본이야, 뭔가 자본을 통제하고 자본의 나쁜 효과를 없애려면 국가를 장악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하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29년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하고 자본하고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국가 자체가 자본가가 됐습니다. 그 자체가 자본의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치 즉, 잉여가치의 생산자가 되죠. 예전에는 국가가 계획자로만 있었는데, 계획행위가 자기계획행위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하고 자본의 분리라고 하는 맑스의 『독일이데올로기』에 나오는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옹립되는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깨지게 되는 거죠. 국가가 시민사회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속으로 내려가서 자본주체를 움직인다. 그럴 때 만약에 주권자 즉, 대통령이라고 가정하면, 대통령의 역할은 한편에서는 정치적 주권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장이거든요.

지금 예컨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들어가면 국가자본을 총괄하는 사장님이 되는 거죠. 회장이 되는 거죠(당연히). 주기적으로 회장이 바뀔 뿐이지 주권자가 회장이 되는 것, 그래서 결국 마케터로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띠게 되는 거는 지금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사회주의는 국가자본범주를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 계획성을 아주 강

력하게 밀고 나가기 위한 도구이자 추진력으로서.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1917년에서부터 1991년까지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읽고, 냉정 자체는 바로 새로운 대안 사회와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읽혔다면, 이제는 그 냉정이라고 하는 전쟁형태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열전의 전쟁형태가 좀 차갑게 이루어지는 Cold War 형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형태를 띠게 된 제국주의 간 관계로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자본형태를 소련이 취했다고 하지만 그 국가자본이 대외성에서 대외의 합병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대외로의 진출에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대위성의 관계로 구축되는 것, 우리가 서방자본주의에서 구축된 건 약간은 다르지만 여기에는 또 많은 경우가 예전에는 제국주의 대 식민지, 그 다음에 중심 대 주변, 좀 지나면 원조해주는 국가와 피 원조국, 이런 식의 관계로 자꾸만 변해나가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이라르키적인 구조, 그래서 병합된 외부로서의 하나의 진영들이라고 하는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됐던 거죠. 그게 지금 4항에서 다루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사회주의 대한 반란들이 5 바로 위에 써놓은 것처럼 크론슈타트반란처럼 일찍이 시작이 되었고, 동독 같은 데는 1953년에 노동자들의 평의회에 의한 봉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6년에는 헝가리에서 또 봉기가 일어나고, 63년 또 68년, 두 번에 걸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폴란드의 연대노조가 공산당에 맞서고, 1989년에는 천안문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산당에 대항하는 투쟁을 벌이고, 91년도에는 광부들이라거나 전통적 산업노동계급이 공산당에 대응하는, 이런 식의 반공산당 운동들이 지금 열거한 중요한 것들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사실상 있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현실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반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주의 하에서 계급 재구성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하에서 계급 재구성과 제국주의 한계, 그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국가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대상을 다른 측면에서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예 아래에서부터, 계급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다음 시간 주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광의로 pt(피티)라는 말을,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말을 썼는데, 사회주의 혁명과정, 사회주의가 동구에서 폭발해 나온 과정은 계급 내부적으로 보면, 숙련노동자들이 반 숙련노동자들을 매개로 해서 미숙련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구조였습니다(노동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장 내에 이런 엄연한 숙련도의 위계가 나는 시기를 우리는 프로페셔널 워커, 전문노동자국민으로 보죠.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갓 공장에 들어온 사람하고, 오래 수공업자 생활하다가 공장에 들어온 사람하고 손 솜씨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전문노동자 시대에 이 위계가 숙련, 반 숙련, 미숙련으로 나타났는데, 레닌의 전위정당을 포함하여 그 당시 공산당들의 주요 조직 대상은 거의 숙련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에도 1차적인 조직 대상은 선진노동자들이었거든요. 선노론, 선노론 이렇게 부르는데, 당이 1차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선진노동자들입니다. 지금 국회위원하고 있는지,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임옥희 씨 있죠. 임옥희 씨 같은 경

우가 그때 선진노동자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진노동자 즉, 숙련노동자들이 당의 1차적 관심대상이고, 선진노동자들을 장악하면, 나머지들을 장악할 수 있다고 당들은 봐요. 그게 이제 레닌 전위론의 뼈대이죠. 그래서 볼셰비키는 바로 선진노동자들에 대한 장악을 통해서 대중들을 일단 움직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짜르는 불과 일주일 만에 붕괴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본 서구자본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본주의는 항상 자력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이렇게 아랫것을 훔치거나 외부의 것을 훔쳐오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아래의 것을 훔쳐오고, 대외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건데, 이 관계가 대체 정체가 뭐냐. 이 계급 구성, 전위와 대중이 구획되어가지고 투쟁해오는 이런 전위주의적 구조가 강력하다는 거를 발견을 했고, 위험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서구자본가들의 대응은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려서 17년에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태의연한 대응을 실제로 했거든요. 독일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계속 썼죠. 독일 레테의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압정책과 빈곤의 정책을 계속 쓰다보니까 나타난 복수가 공황이었죠. 노동자들은 호주머니 비었어요. 창고에 물건이 쌓였습시다. 아무도 물건을 사줄 수 없는 상황이 29년에 도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혁명의 교훈을 자본가들이 빨리 못 받아들임으로서 공황을 겪게 된 셈인데, 지금 우리는 자본가들을 변호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말이죠. ‘아주 빨랐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케인즈가 나서가지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려고 했죠. 노동의 실재성을 인정해야 된다. 노동계급이 싸울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고, 사회운영에서 노동 계급이 기여하는 바에 대한 공정한 대가가 주어져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라고 케인즈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케인즈는 영국 사람이지만 이걸 받아들인 게 미국이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후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케인즈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안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미국이 후진국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케인즈주의를 미국이 받아들였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궁극적 승전국가로 되었잖습니까. 핵을 개발하고, 궁극적 승전국가로 되면서 미국의 시스템들이 유럽전체에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후 장기호황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는 데요.

▲케인즈주의

그럼 이때 즉, 케인즈가 한 거는 뭐였나 하면, 노동자들의 전통적인 계급구조를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 반 숙련, 미숙련이라는 구도에서 이 두 부분을 해체시켜가지고 미숙련 노동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주 강력한 기계화였죠. 전기화, 기계화, 이게 명명하면 테일러주의하고 포드주의로 불리고 정치적으로는 케인즈주의로 불립니다. 이거 삼위일체죠. 맨 아래 경영적 차원, 노동자 관리차원에서는 테일러주의가 들어가고, 시간 관리입니다(동작관리). 포드주의는 분배관리거든요. 그래서 잉여가치가 많이 향상되었을 때, 이걸 노동자들에게도 좀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인즈주의는 그걸 국가의 정치적인 관리 원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테일러주의, 기업체 수준에서의 포드주의, 전체적으로 전 사회적으로는 케인즈주의가 자리 잡아서 이 세 개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려나갈 때 노동자들은 대중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냥 기계를 2,3일 훈련받고 바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mass worker, 대중노동자로 바뀐다. 여기까지가 골자입니다.

▲제국주의의 한계

그러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갱신능력을 갖는데, 이건 영원한 것인가. 이미 우리는 두 번의 위기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처음부터 독재와 병합, 이 두 축을 얘기했죠. 내부적으로는 독재, 대외적으로 병합하는 겁니다. 근데 독재에 대한 저항이 우선 있었습니다. 이게 48년이라거나 70년이라거나 1905년이라거나 17년 등의 상황이죠. 독재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 레닌이 바로 이 한계를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죠.

바로 제국주의의 한계는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국주의의 한계는 장의 붕괴가 아니고, 가치차원의 그런 게 아니고 혁명을 일으키면 제국주의는 끝나는 거다. 라고 봤던 거죠. 이거는 맑스 사상, 『자본론』에 나타나는 맑스의 생각을 거의 도입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맑스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이렇게 하다가 끝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끝이 없다고 봤죠.

근데 좌파들 중에는 그렇게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맑스는 자본의 한계란 말은 자본 자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본 자체라는 말은 뭐냐, 마치 그건 자본이 자기붕괴할 거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자본 속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노동자가 자본입니다), 이 노동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가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도 바로 가변자본으로서의 노동자와 고정자본간의 관계문제죠. 이 관계 속에서 자본의 한계가 주어진다고 봤죠.

근데 제국주의의 한계는 바로 레닌이 보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행동이죠. 행동에 의해서 한계가 주어진다고 사실상 래디컬한 한계가 주어졌고, 제국주의는 아주 극단적 위기를 이 시기에 경험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날 싸우기만 하던 자들이 연합해가지고 백군을 편성해서 러시아를 집중공격을 했잖아요. 여기만도 그런 연합은 위기의식이 들지 않으면 안 생기거든요.

두 번째의 경계는 바로 병합의 문제, 병합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해방운동이죠. 우리가 아까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란 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해방운동이 바로 자본의 병합운동에 대한 한계로 계속 작용을 함으로서 자본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그 시기, 우리가 지금 내셔널을 아무리 비판하지만 그건 변화된 상황에서의 문제이고, 그 이전 시대에서 보면 민족해방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정신은 다음 주에 제국주의의 이행과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